



1월 28일 서울 능인복지관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정성껏 만두를 빚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설 음식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능인사회복지관, 직접 빚은 만두·떡 독거노인 등에 전달

“스님, 만두 빚으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월 28일 서울 능인복지관. 명절 때마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복지관을 찾는 33명의 SK 네트웍스 직원들이 능인복지관 관장 법등 스님의 만두 빚는 모습에 한마디씩 거든다. 스님이 만두 속을 넣고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 예쁜 모양의 만두를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등 스님은 “그저 강원에서부터 쪽 해는 일”이라며 웃어넘겼다.
이 날의 메뉴는 김치만두, 만두 속과 만두국에 들어갈 고명은 모두 능인복지관 어머니 봉사회의 다지고, 부치는 손놀림 속에서 만들어졌다.
명절 때마다 능인복지관 인근의 구룡마을과 개포동, 포이동 일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떡이며 만두를 만들어 오다 보니 이제 자원봉사자들 모두 수준급 실력을 자랑한다. SK 네트웍스 제명국(41) 과장은 “집에서도 만두 잘 빚

는다고 얼마나 사랑받는지 모른다”며 너스레를 떨고 옆에서 묵묵히 만두를 만들고 있던 강형남(37) 과장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SK 네트웍스 직원들과 능인선원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낸 만두는 모두 3000여 개. 정성껏 빚은 만두와 함께 신도들이 모은 돈으로 능인선원 떡방앗간에서 공들여 빼낸 가래떡 2kg, 김·볶은 고기·계란 지단 등의 떡국 고명이 한 박스로 포장됐다. 독거노인 및 지역 저소득층 이웃들이 설날 아침에 불만 붓고 끓여먹을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모은 준비를 해서 직접 100여 가정에 전달하는 것이다.
관장 법등 스님은 “강남하면 ‘부촌’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회에는 언제나 그늘진 부분이 있기에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명절을 이웃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02)577-8440
김강진 기자 kangjin@buddhapia.com

나눔의 손잡기 성금

한마음선원 명경지원 - 556,150원
채수경 박순옥 허만석 최정재 이진아 이민아 김재숙
-합 532,800원
총누적금액: 37,721,78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도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범죄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봉사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한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업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중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 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나눔의 저금통 수거합니다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170여 가구에 떡·생필품 전달

승가원 한솔복지관



한솔복지관 이윤희 복지사가 2월 3일 지역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설날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한솔복지관(관장 성화)은 2월 3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한 설날 선물을 전달했다.
한솔복지관과 (주)KT 직원들이 함께 한 이번 '설날 선물 나눔행사'에서는 성남 한솔마을 170여 가구 '차상위계층'에 떡국떡 2kg, 생필품 선물 세트가 전달됐다.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된 혜택을 주고자 노력해온 한솔복지관은 이번 설을 맞아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 소득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에 관심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관장 성화스님은 “지난해부터 유난히 기업체들의 후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사회에는 아직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지진해일 희생자 49재 열린다

12일 도선사 호국참회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가 2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 호국참회원에서 열린다. 도선사는 불자 1인당 남아시아 희생자 1인의 위패를 봉안도록 하고 여기에서 모어진 성금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49재는 세상을 떠난 후 중음신(中陰神)으로 떠도는 영가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기 위한 불교행사다. 혜자 스님은 이와 관련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떠도는 수많은 남아시아 영가들을 감싸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02)993-3161
김원우 기자 shanmok@buddhapia.com

지진·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1월 26-2월 1일)

유지환 1만원 이두경 5만원 박승복 2만원 성불사신도회 30만원 옥련암 10만원 일화스님 30만원 정혜사 100만원 구도회독서모임 100만원 동학사총동문회 200만원 보명사 60만원 박미향 4만원 마니산정수사 50만원 봉화회 20만원 조계종총무원 100만원 신원동학사 100만원 강화 백련사 52만 8000원 김태완 10만원 이희희 10만원 보문종 총무원장 500만원 수덕사 본말사 7114원 6260원 강화정려사 128만5000원 이경숙 2만원 연수암김정현 50만원 광명사 10만원 김윤석 125만6000원 장승규 10만원 법흥사 50만원 조영희 2만원 백홍사 10만원 청원사사부대중 178만8000원 다음카페정음스님회원일동 275만2200원 이성수 3만원 임홍사 50만원 정정선 4만원 이영순 10만원 원주청림사 30만원 송기섭 10만원 서울관음선원 42만9000원 연일회 10만원 김우호 5만원 송경숙 2만원 오희창 50만원 양철사 30만원 김성훈 5만원 CYN 5만원 불광사 100만4360원 원각사 62만원 용주사 20만원 법화사 18만4000원
각원사 100만원 제25교구중앙 30만2000원 자재암 100만원 이기우 1만원 대각사 30만원 통일사(서정) 10만원 양행진 2만원 7교구 다보사 24만7000원 복귀암 30만원 부여보리사 30만원 쌍계사2471만570원 보적사 30만원 8교구 직지사 본말사 1593만4230원 임송자 10만원 8교구직지사본사 1741만3190원 한상철 5만원 한상용 5만원 선운사주지 2740만원 최상숙 2만원 김지미 120만원 16교구고운사 2000만원 불국사본말사 1억1042만2220원 은해사 2000만원 총무원부설장스님 140만원 불교여성개발원 338만237원 불교신문사 4325만5700원 법주사본말사 3000만원 신홍사본말사 5000만원 대흥사본말사 2000만원 조계사신도일동 1억원 봉녕사 85만7000원 윤신자 5만원 심현미 1만원 선정희 10만원 안성운수우 100만원 용주사 1000만원 만의사성지 100만원 직지사 33만8800원 차승열 10만원 건천보현암 20만원 박동석 100만원 전국비구니금회 100만원
누적금액 1,184,534,212원

지진·해일 피해로 통곡하는 남아시아에 자비를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과 함께 남아시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동기를 위한 성금 모금을 전개합니다. 접수된 성금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봉사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해일 피해 돕기 성금 동참 안내**
 동참문의: (02)2011-1824-5
 동참계좌: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재) 불교중앙교연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재) 불교중앙교연
 대한불교조계종·현대불교신문

봉사하고 젊어지니 즐거움 넘쳐요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마포 재가노인복지센터 급식봉사회

“아유,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우리 유자차 한잔씩 해요.”
1월 28일 식당을 가득 메웠던 노인들이 모두 빠져 나가 조용한 가운데는 오후 2시. 마포 연꽃마을(이 사장 각현) 재가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회가 다음 날 노인들의 점심식사에 대접할 ‘돼지 주물럭’ 재료 준비를 끝내고 바쁘게 돌아가던 식당에서 한숨을 돌리는 시간이다.
다른 회원들을 위해 유자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애교만점’ 유정화(64) 보살이다. 나이답지 않은 외모에 발랄한 목소리를 가져 봉사 모임 내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는 유 보살은 “여기서 일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고 밝혔다.
올해로 9년간이나 한 자리에서 한 뜻으로 일해 온 봉사회라 그런지 한 사람이 ‘취’ 하면 다른 사람이 ‘취’ 받아낸다. 음식 하나를 준비해도 어떤 이는 아예 썰고 어떤 이는 반죽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서로 별 혐의를 하지 않아도 절로 된다.
이렇게까지 잘 통하게 된 것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 주의 거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마포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찾아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봉제 전제 인원 20여 명이 봉사할 수 있는 날을 정해 돌아가면서 ‘출근’ 한다는 봉사회. 일은 11시부터 시작인데 식사 준비는 물론 배식, 설거지까지 모두 마친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상 한 번 찌푸리는 일이 없다.
봉사회가 가장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은 ‘자체적 활동’이 어느 단체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냉장고 등 고가의 주방기구가 필요하면 누구랄 것 없이 모금을 하던지 자비를 털던지 해서 마련하고야 마는 것이 이 봉사회의 지력이다.
누구보다 활발히 이런 봉사활동을 이끌어온 봉사회 ‘왕 언니’ 공옥금(78) 보살의 말에 따르면 경조사



마포 재가노인복지센터 급식봉사회 회원들이 노인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있다.

기금 마련과 김장철 김장 나눔 등도 자연스럽게 회원들의 원력으로 이뤄질 정도다.
“식사하러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맛있게 준비했으니 꼭꼭 씹어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지역 노인들을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봉사회가 있어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하다. 김강진 기자

설날 소외 이웃에 자비 나눔 이어져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부산 경남지역의 사찰 및 불교단체복지관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이 활발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은 2월 4일 법화삼매당 향적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부산진구 초읍동과 연지동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무연고 노인, 모자가정 등 불우이웃 100 세대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도원 주지스님을 비롯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이웃들과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산청원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사)금강자비회(이사장 노화순)는 2월 4일 장원시청 대강당에서 제 15회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고 총 4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 성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모·부자, 무의탁 노인 등 30세대에 1200만 원, 저소득가정 고교생 6명에게 장학금 720만원, 국립마산요



마산청원불교연합회 스님들이 '자비나눔한마당' 행사를 통해 조성된 성금을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해 전달식 모습.

천미희 기자